

■ **현장과 시각** ■

시험대 오른 광주 문진위



김미은

문화생활부 차장

지역 음악 단체 대표 A 씨는 요즘 정신 없이 바쁘다. 광주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문진기금)과 무대예술지원작품 공모 사업(이하 무대지원) 지원 신청서 작성을 위해 사업 계획을 짜고 공연 실적을 챙기는 등 눈 코 뜰 새가 없다.

예술계 일각에서는 “문진기금 등에 의존하는 안일한 작품 제작은 예술 발전에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지원 받은 액수에 맞춰 줄 속으로 작품을 제작하거나 문패만 걸어두고 기금을 지원받아 명맥을 유지하는 단체들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열악한 지역 문화 환경에서 각종 기금은 예술단체들에게는 단비같은 존재다.

공모가 시작되면서 심사를 맡을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문진기금(4억5천만원) 뿐 아니라 시가 집행해왔던 무대지원(2억4천600만원)을 비롯해 사회단체보조금(4억5000만원), 예술동아리 지원(4천500만원) 등 지원 사업을 모두 넘겨 받아 문진위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무대지원의 경우 전체 규모는 문진기금보다 작지만 지원금이 평균 2~3천만원 상당의 고액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또 문진기금의 최대 지원액도 지난해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당한 단체들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 선정. 문진기금은 소위원회(위원장 김하림) 7명과 위원들이 추천한 9명 등 16명이 심사를 맡는다. 무대지원도 장르별로 5명이 심사에 참여하며 문진위 등이 추천한다.

일단 소위 위원들이 추천하게 될 2~3배수 예비인사들에서부터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예년의 경우 일부 위원은 친분이 있거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기도 했다.

각종 기금 심사 때마다 ‘불공정 심사’ ‘내 사람 챙기기’, ‘나눠 먹기식 집행’ 등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최근 취재 현장에서 만난 예술인 B씨는 지난해 특징적인 심사한다는 소리를 듣고 “심사 당시부터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오랜 기간 양분된 모 예술분야의 경우로 심사위원 가운데 ‘상대편’이 있으면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가.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는 문진위의 지도·감독과 제대로 된 심사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인맥 등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우수 단체와 작품을 선정하겠다는 심사위원들의 공평무사(公平無私)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제대로 된 심사로 각종 기금이 특정 예술단체나 개인의 생색 내기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mekim@kwangju.co.kr

# 이번엔 힐러리가 웃었다

## 美 대선 뉴햄프셔 예비선거 오바마 ‘검은 돌풍’ 잠재워

### 민주 대선판도 원점으로 공화 매케인, 롬니 놀러

미국 대선 민주·공화당 후보선출을 위한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최대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예상 외로 꺾고 승리했다. 또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경쟁자인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를 여유있게 누르고 1위에 올랐다.

힐러리는 8일 밤 11시30분(현지 시각) 현재 83%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39%를 득표, 37%를 얻는 데 그친 오바마에게 2% 포인트 간발의 차로 어렵게 승리를 확정했다.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은 17%로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힐러리와 오바마는 주(州)별 대결에서 1대1로 승패를 주고 받으며 장군명군하는 초반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실시된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충격적인 3위에 머물렀던 힐러리는 이번 승리를 계기로 향후 당내경선에서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돌풍을 잠재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또 탄력을 얻어간 ‘힐러리 대세론’과 선거운동 전반에 활력을 되찾고 경선전의 대세가 걸린 2월 5일 ‘슈퍼 화요일’에 매진할 수 있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됐다.

힐러리는 이날 승리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뉴햄프셔가 나에게 안겨준 것과 같은 제자리로의 복귀를 미국에게도 주자”면서 “내일 아침 일어나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계속 전진하자”고 지속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힐러리는 또 이번 선거를 계기로 경륜을 강조하던 선거전략을 바꿔 ‘변화’를 주장하는 오바마를 겨냥, 오바마가 공약하는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인지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힐러리는 선거참모진을 대폭 교체, 전열을 가다듬는 등 전반적인 선거대책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오바마는 이번 패배로 지난 3일 아이오와 코커스 승리로 불기 시작한 거센 ‘오바마 돌풍’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바마는 백인 유권자가 90% 이상 차지하는 두 개 주에서 실시된 경선에서 예상을 깨고 선전함으로써 대세론을 내세워온 힐러리의 대권가도에서 위협적인 경쟁자임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선과정에서 힐러리와 치열한 승부가 예상된다.

오바마는 이날 패배가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통해 힐러리에 축하의 말을 건넨 뒤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해냈다”면서 “지금 미국에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변화’를 거듭 역설했다.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로드햄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오른쪽)이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날인 8일 뉴햄프셔주 콩코드에서 투표소를 방문, 이곳 학생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힐러리 “오늘밤 가슴 벅차다”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 3위의 충격을 딛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의 대반전을 이룩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오늘 밤 가슴이 벅차다”며 화려한 만화를 만끽했다.

자꾸만 밀리는 여론조사 지지율에 뉴햄프셔 유권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던 힐러리는 이날 승리가 확정된 직후 지지자들 앞에 나와 “너무나 가슴이 벅차다. 뉴햄프셔가 나에게 안겨준 만화처럼 미국을 되살리자”고 호소해 환호를 받았다. 힐러리는 활짝 웃는 얼굴로 연단에 나와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딸 첼시의 축하를 받은 뒤 감격에 겨운 모습으로 후보 경선 첫 승리의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 오바마 “힐러리 잘 싸웠다”

뉴햄프셔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8일 접전 끝에 석패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승자인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게 축하를 보내면서도 “어떤 장애물도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의 소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의원은 이날 힐러리에 축하를 보낸 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오늘 밤 뉴햄프셔에서 한 일을 일기내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우리의 앞 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변화를 촉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며 “나는 아직 힘이 남아있고, 계속 전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역설했다.

/연합뉴스

## 美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재협상 어렵다”

###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 밝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와 관련한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미 측은 전작권 전환시기는 한·미가 합의한 대로 이행해 간다는 입장”이라고 보고했다.

미 측은 “이미 합의한 계획대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전력)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시기 재협상과 관련해 국방부 측도 이미 합의된 사항인 만큼 재협상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정부가 2012년 4월 17일로 합의된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한 재협상 문제를 요구할 경우 한·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측은 전작권 재협상 문제에 대해 이번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 군에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정동영 ‘정중동’ 끝?

출판기념회 참석 여의도 외출

대선패배 이후 여의도 정가를 떠나 있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9일 모처럼 여의도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나란히 열린 정기간 전 선대위 총괄조정실장과 이광수 전 선대위 후보 수행실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전 의장 측은 “대선 과정에서 열심히 도와준 측근들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만큼 간단하게 축하를 하는 수준”이라며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지 말 것으로 당부하고 있다. 정 전 의장도 이날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했다.

하지만, 정 전 의장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외부활동 범위를 점차 넓혀갈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 전 의장은 대선 이후 여러 차례 정치적 행보를 해왔다.

그는 올해 초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태안에서 머물다 지난주 서울로 올라왔으며 지난 7일에는 정치적 고향인 전주를 방문, 이장직 KIC그룹 회장과 이은영 전북도당 공동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 또 급수 말에는 다시 태안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박근혜 ‘공천 투쟁’?

‘당에 남겠다’ 총리 입각 거절

“정치발전이나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고 당에 남겠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에서 거론되는 총리 입각과 관련해 분명한 거절의 뜻을 밝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표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하례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입각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정 경협 부족”이라는 약점을 보완할 기회인 총리의 수락 대신, 눈앞에 닥친 ‘4.9 총선’을 챙기며 “국회의원 박근혜”로서 당에 남는다는 큰 틀의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박 전 대표는 거절의 이유로 ‘정치발전’과 ‘나라를 위해’라는 두 가지 명분을 들었다. ‘정치발전’은 당내 공천과 연결고리가 있는 단기 관점의 키워드 성격이 강하고, ‘나라를 위해’는 국가정책성과 통하는 거시적 담론 성격의 단어로 해석된다. 따라서 당장 공천과 관련한 향후 공천심사위 구성 등의 진행과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당헌·당규 등 원칙에 따른 공천을 강도 높게 요구하며 이 당선인측과 격돌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주)무등산업 (Mudeung Industry Co., Ltd.) featuring various home appliances like refrigerators, air conditioners, and washing machines.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062) 371-7895 and 011-601-7701, and lists several branch offices across the region.